이름없는 가방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고단했던 취업준비생 시절을 끝내고 취직을 하게 되었다. 당시 입사해서 지금까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신용보증재단이다. 신용보증재단은 해당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곳이다.

신용보증재단의 합격통지를 받은 그 날 저녁, 아버지가 술을 한 잔 하자고 하신다. 평소에도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 취업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던 아버지는 내가 공공기관에 취업하자 상당히 기뻐하셨다. 술을 연거푸 들이키시면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던 중 나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시면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다.

"너, 거기서 근무하면서 절대 돈 같은 건 받으면 안 된다!"

"네? 무슨 돈이요? 돈 받을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돈을 줘요?"

"아니다. 네가 하는 업무는 돈이 꼬일 수밖에 없어. 아버지 말 명심해라. 돈 줄려는 사람이 많을 텐데 10원 한 장도 받으면 안 된다. 마음 단단히 가져라."

평소와는 달리 진지한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한 귀로 흘려듣고 있었다. 내가 맡게 될 업무의 무게를 알기에는 워낙 아는 게 없었고 사회경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나는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다.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사업장이 있는 곳에 나가서 실제 사업 여부 및 제출한 서류 진위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조사를 끝나고 나오는 나에게 봉투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게다가 봉투를 주는 방법도 정말 다양했다. 그냥 대놓고 주시면 거절할 걸 알고 계셨는지 인사를 하고 나가는 길에 손에 쥐어주고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건 애교 수준이었다. 미비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이에 봉투를 끼워서 주는 사례는 일상다반사였고,

악수를 하면서 손에 현금을 바로 쥐어주는 분들도 많았다.
한번은 화장실 간 사이에 재킷 안주머니에 돈을 넣은 분도 계셨는데 사무실로 복귀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돌아가서 돈을 돌려드린 적도 있었다. 돈을 안 받는다고 할 때 사장님들의 반응도 정말 다양했다. 불안해하시거나 미안하다고 하시고 심지어는 사람의 성의를 무시 하냐면서 화를 내는 분도 계셨다.
2년 정도 근무하면서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 때마다 다 거절을 했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부심도 생기게 되었고 나 스스로도 정말 청렴하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간의 자만심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내가 한참 자만심에 빠져 방심한 틈을 타서 발생하게 된다.

입사한지 3년째 되던 해의 무더운 여름에 사업장으로 심사를 하러 나갔다. 당시 방문했던 업체는 유명 패션 브랜드로부터 하청을 받아 백화점에 납품하는 가죽가방과 가죽지갑을 만드는 곳이었다. 건물 지하에 위치한 사업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가죽냄새와 본드 냄새가 진하게 났다. 사업장 안에는 남자 사장님과 사모님, 다른 직원 몇 명이 가죽을 자르고 붙이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
부족했던 서류를 받고 궁금했던 사항을 확인 후 신용보증 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업장을 나오는데 사장님께서 부르신다.
“잠시 만요. 대리님.”
“네?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돌아서는 나를 보면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시더니 쇼핑백을 하나 건네신다.
“별 건 아닌데 가져가세요. 그냥 막 쓰기에는 편할 겁니다.”
“네? 이게 뭔데요?”
쇼핑백 안을 보니 빨간색의 여자 가방이 보인다. 백화점에서 파는 브랜드의 가방과 비슷하다.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그래도 비싸 보인다.
“사장님. 이런 거 주시면 안 됩니다. 놓고 가겠습니다.”
“대리님. 이건 상품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쇼핑백 안에서 가방을 꺼내서 보여주시면서 사장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신다.

“여기 보시면 상표가 없잖아요? 이건 안 붙인 게 아니고 못 붙인 거예요. 만들다가 살짝 불량이 난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가죽값 때문에 버리긴 아깝고 해서 가지고 있다가 지인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이게 브랜드 제품인데 상품가치가 없다니요?”
“진짜에요. 저기 보세요. 저기 상표 없는 것들이 다 조금씩 불량이 나서 납품이 안 된 제품이에요.”
사장님이 손으로 가리킨 진열장에는 나에게 보여준 가방과 같이 브랜드마크가 붙지

않은 가방이 색깔별로 놓여 있었다.
"이거 어디 가서 팔지도 못해요. 돈도 안 되는 거고요. 그냥 가져가서 막 쓰시다가 흠집나면 버리면 돼요."
사장님의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던 나를 보며 옆에 계시던 사모님께서도 슬쩍 말씀을 건네신다.
"결혼하셨어요? 집에 가져가시면 아내분이 좋아하겠네요. 이게 메고 다니기에도 적당하고 색깔도 예쁘잖아요."

지금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날이 더워서 더위를 먹은 건지, 사업장에 가득한 본드 냄새에 정신이 나간 건지, 아니면 집에서 애를 보느라고 외출도 잘 못하는 아내가 생각나서였는지,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이 들고 다니던 가방이 예쁘다고 말하던 아내의 말이 기억나서였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게 원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를 보며 연신 쇼핑백을 건네시는 사장님과 사모님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나도 모르게 쇼핑백을 받아들었다. 이후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는 가방 잘 쓰겠다는 말까지 하고 사업장을 나왔다.

사업장이 있는 지하1층에서 건물 밖으로 나가는 1층까지 연결된 계단을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조금씩 무거워져만 갔다. 계단을 올라와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한여름 오후의 햇살은 뜨겁기도 하고 밝기도 했다. 그 햇살을 받으면서 걸어갈 자신이 없어졌다.
출입문 안쪽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입사 시험 볼 때의 생각이 나기 시작한다. 인적성 검사 문제, 자기소개서의 내용, 면접의 질문 등등.. 그러다가 아버지가 나에게 술을 따라주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
'네가 하는 업무는 돈이 꼬일 수 밖에 없다..... 마음 단단히 가져라'

다시 계단을 내려가서 사업장 문 앞에 섰다. 크게 숨을 내쉬고 사업장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장님 내외분이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신다.
"아무리 생각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부담스러운 거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심사 일정은 원래대로 진행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차 만류하시는 사장님을 뒤로 하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사업장을 나온 후 계단을 빠르게 뛰어 올라가서 건물 밖으로 나왔다. 햇살은 눈이 부시게 밝았고 엄청나

게 더웠지만 마음은 시원해지는 느낌이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왔다. 그날 밤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해 밤에 편의점에 가서 맥주까지 사와서 마셨지만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다.

그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청렴연수원에서 진행한 청렴기본강사 과정을 수료하여 사내강사로서 역할을 수행중이다.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교안을 만들다 보면 그때의 사건이 생각난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한 느낌이다. 돈은 잘 거절했으면서 가방은 왜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그때의 나에게 물어보고 싶기도 하다.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그때 내가 그 가방을 받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많이 달라졌을까? 지금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곤 한다. 어쩌면 그때 그 순간이 내 인생의 분기점이었을 수도 있겠단 생각을 해본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수없이 가정을 해보면서도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다, 그때 그 순간 계단을 다시 내려간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이다.